

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리밭위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3월 19일(수) 제 3057호



전북·전남 8개 지자체, 새만금~목포 서해안철도 건설 '한목소리'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건설 국회 정책포럼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 지역구 국회의원, 8개 지자체장이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의 국가철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설을 촉구했다.

<사진=전북도>

호남 8개 지자체, 서해안철도 건설 촉구

서해안철도 건설 한목소리...전남북 지자체 공동 건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해 국회서 정책포럼
8개 지자체 공동건의문, 노선갈아 서해안 경제벨트 구축

전북자치도와 전남도를 포함한 호남권 8개 지자체가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의 국가철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전남 지역 8개 지방자치단체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관영 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군산·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 등 6개 시군 단체장, 국토교통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17명, 교통·철도 전문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안철도 건설 국회 정책포럼'을 열고, 서해안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노선 중 군산~목포 구간이 연결되면 수도권과 서해안이 하나의 철도망으로 묶이며, 서해안 경제벨트가 완성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산업·물류 거점 기능 강화 △관광 활성화 △균형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서해안철도는 기존 서해선(경기충남)

과 장항선(충남전북)과 연계해 인천에서 목포까지 연결되는 핵심 간선철도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해안권은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으며 새만금 신공항·신항과 연계한 국가 물류체계 구축도 가능해진다.

김진희 연세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서해안철도는 총사업비 4조7천91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철도사업으로, 산업·관광·물류가 어우러진 서해안권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포럼 1부에서는 서해안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8개 지자체 단체장이 서명부를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철도망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서해안철도는 수도권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5차 국가철

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 2부에서는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회장이 좌장을 맡아 서해안철도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진희 연세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전북연구원, 전남연구원 등 철도·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업 타당성과 추진 전략을 집중 분석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본부장은 "서해안철도가 개통되면 군산~목포 구간 이동 시간이 79분 단축되고 서해선과 장항선과의 연계를 통해 인천에서 목포까지 최단거리 이동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서해안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서해안철도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 사업"이라며 "정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조속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새만금 백년대계, 한국을 넘어 세계를 리드하다”

새만금 대토론회, 특별지방자치단체 신속 추진
스마트워터그리드 시범지역 도입 등 물산업클러스터 구축 제안
새만금 역사, 해양문화 기반 세계적 관광문화 중심지로

새만금사업법도민지원위원회는 새만금 사업의 범국민 공감대 형성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18일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5년 새만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 백년대계, 한국을 넘어 세계를 리드하다'라는 주제로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새만금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논의 주제는 새만금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 새만금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 해양문화 및 생태환경에 기반한 새만금 관광정책 방향 등으로 발제는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 정용원광대학교 교수, 광병선 전 군산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먼저, 이남호 전북연구위원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 새만금 백년대계라는 아젠다로 새만금 개발 추진을 위한 공공주도 기반시설 공급, 토권증권 도입 등을 통한 개발사업 투자방식 다변화, 민간 투자 전담기구 설립, 새만금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박재희 교수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질 새만금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질 새만금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설립을 제시했다.

정용 교수는 그간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물산업들을 기반으로 물 재이용, 담수화 유입수 등을 IT와 연계한 통합

물관리시스템인 스마트워터그리드 시범지역 도입 등을 제안했다.

광병선 전 군산대총장은 네덜란드 등 해외 간척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새만금의 역사와 자연환경, 해양문화 등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환경 관광명소를 조성, 새만금을 세계적인 관광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관광정책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경기 도의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전영욱 군산대 교수, 박영기 전북대 교수, 광동희 전북대 교수, 최영기 전주대 교수가 참석했다.

정진 새만금사업법도민지원위원회 이사장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미래비전을 더욱 구체화해서 새만금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자치도, 도민 체감 '현장 기반형 특례' 집중 발굴한다

특례사업발굴추진단 본격 가동...6개 분과 운영 전문성 강화
4월까지 발굴 마무리, 상반기 내 최종 입법과제 확정



전북자치도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낸다.

도는 18일 도청에서 '2025 특례 사업발굴추진단' Kick-off 회의를 열고, 신규 특례 발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은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고령친화 ▲민생특화 ▲3대 기반 등 6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특례의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올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기반형 특례'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특례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직능단체·산업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군의 입법 과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전북도의 비전 실현을 위해 특

새 특례 발굴에도 집중한다. 전북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 반영 특례와 비전 실현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미완 분야를 도출해 새로운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발굴된 특례 중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실효성이 높은 사례를 재검토하고, 강원·전남·부산 등 타 지역의 특별법을 비교 분석해 도입 가능한 특례를 찾고 있다. 발굴된 특례는 총괄지원과, 도 담당부서,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함께 단계별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한 후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4월까지 특례 발굴을 완료하고 5월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정부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제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입법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도, 1만4천여명 돌봄교실 학생들에 과일간식 지원

전북도 자체 예산 투입, 94개 학교·연간 30회 HACCP·GAP 인증 과일 공급...‘학생·농가 만족’

전북자치도가 ‘2025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3년 종료됐으나, 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과일 간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품목으로 구성되며, 세척·절단 등 가공 과정은 식품안전관리기준 인증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도는 2월까지 시설·장비, 작업 공정, 위생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과일 간식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학교 현장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기존 빵·과자 간식을 신선한 과일로 대체하고, 학생들의 영양 균형 개선을 도모했다.

학부모와 교사의 높아진 식품 안전·위생 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기별로 시군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공급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과수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맛 좋고 품질 좋은 지역 과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학생 영양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2025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정혜민 기자



안호영의원, 기후위기에서 기후적응' 신전략 제시 국가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개최...기후적응 정책 마련해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가기후위기적응포럼이 공동 주관한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 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가 1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 지구적 재앙이 이제는 일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해야 할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국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기후적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안 위원장은 “기후적응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후적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대응, 특히 적응 정책은 민생과 닿아 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후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는 총 4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후적응법 제정 및 경제적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학계와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결성된 국가기후대응적응포럼은 향후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연구포럼으로 발전시켜 실질적인 기후적응 정책 연구를 선도할 계획이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자치도,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공모 선정

도비 포함 총 2억4천만원 투입, 오는 6월 예수병원에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전북자치도가 보건복지부의 ‘2025년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도비를 포함해 총 2억4천만원을 투입, 올해 6월부터 전주 예수병원에 수탁해 심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난임부부와 임산부를 위한 체계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난임 환자는 2020년 4천356명에서 2023년 4천601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산후우울감 경험률이 2021년 50.3%에서 2024년 64.5%로 상승하는 등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난임부부 및 임산부 대상 맞춤형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신건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이 협력하는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난임 및 유·사산 경험 부부 상담 ▲임산부 및 출산 후 산모 상담 ▲자조모임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한편, 도는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부부 지원, 난임 진단 검사비 지

원 등 5개 사업에 총 39억원을 투입,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임신과 출산·양육 과정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파악 필요

장연국 도의원, “조직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인식 없어”...전북도, 개선책 마련해야

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은 18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전북자치도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문체국 소관 출연기관(문화관광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위탁기관(한국소리문화의전당), 지방보조사업자(소리축제조직위, 서예비엔날레조직위) 직원들의 처우를 점검한 결과,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적법한 임금지급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조직위는 예산 부족으로 직원들의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 방식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는데, 법령과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존재하는데도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포괄임금제를 시행했다.

장 의원은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가 동의하며, 근

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되는데, 조직위는 북부규정과 취업규칙상에 고정된 근무시간을 명시해 놓은 사업장이므로 현행 포괄임금제는 원천 무효가 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현재 조직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라는 인식마저 없고 특히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도는 그동안 조직위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관 기자

전북소방본부, 민·관 합동 ‘위험물안전 기동지원반’ 운영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8일 도내 노후, 대형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위험물안전 기동지원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 기동지원반’은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위험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으로, 매월 노후 위험물시설을 방문해 분야별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설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도내 위험물 제조소는 총 6천132개소에 달하며, 이번 위험물안전 기동지원반은 지난달 화재가 발생해 8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익산시 소재 ㈜LG화학생명과학익산공장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해당 시설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도소방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유지·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험물 취급자의 건강·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을 병행했다.

김현철 전북소방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와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윤준병 의원, “친환경 농업 지원 농자·직불인증 제도 개선 시급”

윤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정읍·고창) 의원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친환경인증 농지제도 개선 ▲탄소중립 위한 농식품 인증제 선진화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

기토 뜻을 모았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 “2009년 12%였던 친환경농업 면적이 2023년 말 4.2%로 줄었고 친환경농업 예산 또한 최근 5년간 10% 감소했다”며 “2024년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평가지표 달성은 실패했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학교급식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는 것을 비롯해

군급식법 제정,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같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직불제와 임차농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재해관련법 제정과 인증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인증비와 자재비 지원, 국회 차원의 소비촉진 이벤트, 간헐적 친환경농업 우선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군산시 공고 제2025-658호】

미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9일

군 산 시 장

1. 목 적 : 우기철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상습적인 침수피해 발생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5. 3. 19. ~ 4. 8.(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5. 3. 19. ~ 4. 8.(20일간)

4. 공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5.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주민의 의견청취)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치	지 정 내 용			지 정 사 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미릉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릉동 315-90번지 일원	침수 위험지구	가	183,118	상습적인 침수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의 우려가 있어 정비를 통해 재해요인을 해소하고자 지정함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예정)

지구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시기	비고
미릉지구	48,900	- 배수펌프장 1개소 신설 - 우수관로 정비	2026년 (예정)	

8.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063-454-6030)

다. 제출기한 : 2025. 4. 8. 18:00까지

라. 제 출 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 의 처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063-454-3862)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전주시 덕진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책 가동

구, 105억 원 규모 신속집행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전통시장 장보기의 날·골목상점가 이용의 날 운영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심규문)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구는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구는 상반기 내 예산 집행률을 54.5%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

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 상황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액은 105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시민불편지역 도로 정비사업 ▲교량 보수·보강 공사 ▲도로 개설사업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들이다.

또한 구는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도 운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구는 매월 1회 부서 및 동별로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을 운영하고, 지역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해 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점가 이용의 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는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을 구청 구내식당 휴무일로 지정해 직

원들이 인근 골목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는다는 구상이다.

심규문 덕진구청장은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내수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완주·전주 통합추진 행보 ‘속도’

완주군민들 요구사항 담긴 107개 상생발전방안 분과별 심의 결과 점검 및 추가발굴 논의

전주시민을 대표해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완주군민들의 요구사항을 논의 중인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가 완주·전주 통합추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위원장 박진상, 이하 위원회)는 18일 위원장과 부위원장, 7개 분과위원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의는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 의결 전 분과별 변경 수용, 재검토, 수용 불가로 결정된 안건들에 대한 조정을 위해 열린 것으로, 운영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쟁점이 되는 방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앞서 위원회는 그동안 7개 분과별로 나뉘어 2차례에 걸친 분과 회의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 위원들은 총 12개 분야

107개 상생발전방안 중 통합시 명칭에 관한 사항 등 16개 사업은 공통으로 논의하고, 나머지 91개 사업은 7개 분과로 나뉘어 ▲수용 가능 ▲재검토 ▲수용 불가 여부를 심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당초 완주군민이 제안한 사업을 양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 변경해 제안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힘써왔다.

위원회는 또 ▲완주지역에 시청사·시의회청사 건립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관한 상생발전 방안을 먼저 발표하기로 의결하는 등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 건의에 앞서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도 완주·전주 통합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박진상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은 “상생발전방안 심의를 위해 지혜와 고민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완주군민들의 요구사항을 논의 중인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가 완주·전주 통합추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기 전에 전주시민으로서 과연 완주와 전주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기회였다”면서 “향후 추진될 완주군민협의회의와의 협의 전에 상생발

/김영태 기자

전주시, 국가 예산 확보 위해 국회와 협력체계 강화 나서

2026년도 전주시 주요 현안 사업 및 국가예산 사업 설명 및 국회 차원의 지원·협력 요청

전주시가 전주 발전을 위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주요 실·국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주요 현안과 국가예산 확보 사업들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를 전달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시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요청한 주요 현안 사업은 전주시

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준비 ▲기린대로 BRT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다.

또한 시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와 기린대로 BRT 사업을 통해 전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점사업인 ▲국립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 전주 설치 ▲전주부성 복원·정비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조성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 조성 ▲전주 MICE 복합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북·전주 가상융합 산업 콤플렉스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립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 전주 설치의 경우 전주의 영화·영상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시는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시는 지역 내 콘텐츠 제작 및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역사적 가치를 되살려 관광 자원화에 나서기 위한 전주부성 복원·정비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과 MICE 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새로운 경제 동

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의 미래 성장을 위해 주요 현안 사업과 국가 예산 확보의 원활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보좌관들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중고생인터넷수능방송수강료지원

오는 4월 4일까지 213명 선착순 모집...1360여개 강좌 제공

전주시가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 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4월 4일까지 전주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213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고교생은 연간 수강료 4만5000원 중 3만5000원을 시에서 지원해 연 1회,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대상자는 인원 제한 없이 전액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을 통

해 가능하며, 시는 전주시 거주 여부 등 자격조건을 확인한 뒤 오는 4월 4일 이후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사업은 강남인강(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통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360여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어 수강생의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이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학력 향상에 적극 활용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덕진구, 우기 대비 가로등 안전점검 실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심규문)는 우기철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4000만 원을 투입해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상습 가로등·보안등 고장구간과 가로등이 노후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누전차단기와 점멸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 전기시설물의 사전점검을 통해 우기철 도로조명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구는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제어기함과 등주의 절연상태 및

접지 ▲누전차단기와 점멸기의 작동 여부 ▲등주 점검구 내 전선의 이상 여부 등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일제 점검키로 했다.

구는 또 점검 결과에 따라 누전이 검출된 구간의 보수 및 노후화로 인해 조치가 필요한 구역은 우선순위를 정해 공사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심규문 덕진구청장은 “습기가 많은 우기철이 되면 누전 등으로 감전 사고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도소방본부, 구급차 보강 34억 투입... ‘안전이송’ 만전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구급차 보강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34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이달부터 7월까지 진행되며, 노후화된 구급차 19대를 최신의료장비를 탑재한 특수구급차로 교체하고, 감염병 대응에 특화된 중형응급구급차 4대를 신규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소방본부는 총 124대의 구급차를 운영하며 정기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의 성능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긴급 출동 지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형응급구급차는 2022년부터 권역별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배치돼 왔다. 현재 도내에서 8대가 운영 중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제·장수·임실·부안 지역에 4대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모든 소방서에 최소 1대 이상의 중형응급구급차가 보급돼, 총 15대가 현장에서 운용될 전망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정원문화센터, 봄맞이 ‘정원엔오브제’ 전시회 개최

전주시 정원문화 확산 거점인 전주정원문화센터가 시민들이 자연 치유와 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한 달 동안 전주정원문화센터에서 봄맞이 ‘정원엔오브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8월 열린 첫 번째 전시회에 이어 전주정원문화센터가 마련한 두 번째 전시로, ‘도시에 자연을 심다(정원엔오브제)’를 주제로 완성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수 정원 리더를 발굴하고 전주정원문화와 관련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트리하우스 행복’과 ‘천진난만한 웃음, 동심을 빚다’의 두 가지 콘셉트의 전시 공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트리하우스 행복’ 공간은 봄을 알

리는 진달래꽃과 함께 정정 정원도시 전주 시민들에게 심신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다.

또한 ‘천진난만한 웃음, 동심을 빚다’ 공간은 웃음과 즐거움, 순수한 기쁨을 선사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이번 전시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연과 정원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재발견하고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정원문화센터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정원을 통해 자연 속 휴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를 꾸준히 기획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옥정원의 꽃과 나무 ▲정원 속 작은 음악회 ▲봄에 만나는 구근식물 ▲반려식물 만들기 ▲정원 유사식물 비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시는 현재 센터 누리집(gardencc.jigof.kr)을 통해 교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8648)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정원문화센터와 정원산업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

능한 정원문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에서 ‘우리의 정원,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내일’을 주제로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소비자 유관기관 합동 ‘이동상담센터’ 운영

전북자치도는 매년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대학가 불법 방문판매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비자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담실은 이날 전북대를 시작으로 도내 9개 대학교를 순회하며 진행되며, 대학생들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동상담실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운영되며, 대학생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방문판매, 불법 피라미드, 인터넷 쇼핑물 피해 등의 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직접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

매년 신학기가 되면 사회적응력과 소비경험이 부족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상술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방문판매업체 직원들의 감시까지 찾아와 자가격중 과정이나 여학생들을 필수 교육 서비스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가 많다.

사재영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순진한 대학생들은 불법 상술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 예방 활동부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도, 노후 산업단지 인프라 혁신으로 경쟁력 제고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시군 대상 설명회 개최...’30년까지 5년간 도내 75개소 산단 인프라 등 개선

청년 선호 근무환경 조성...산단 환경 개선해 기업 활력 증진

전북자치도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도내 75개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관련, 18일 도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와 함께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연차별 정비계획과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정비 계획은 202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기존 농공단지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 도내 산업단지 생산액의 68%를

차지하는 일반산업단지까지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비 대상은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일반산업단지 17곳 ▲10년이 지난 농공단지 58곳으로, 도로 정비, 상·하수도 교체, 주차장 조성, 관리동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계획수립은 시군과 협력해 단계별로 추진된다. 2025년 3~4월 시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월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한 뒤, 6월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시급성과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고, 사전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예산 중복을 방지하는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산업단지를 젊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년 산단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 공장의 청년 친화적 리뉴얼, 산단

환경개선펀드 사업 등이다.

아울러, 산단환경조성사업(총연) 통합 세부운영요령 개정사항도 설명했다. 해지·협약 변경, 온라인 관리시스템 등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사업 추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시군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단지 정비의 큰 방향을 설정했다”며 “임주기업과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산업단지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농신보 남원, 위탁금융기관 대상 실무교육

76개 기관 대상...신용보증 절차보증사고 관리 등 실질적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남원 권역보증센터(이하 농신보 남원센터, 센터장 이성로)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총 76개 관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농신보 보증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남원원에농협 한빛지점 2층 회의실에서 이뤄졌으며, 13일에는 임실군, 장수군 소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4일에는 남원시, 순창군 소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오후 2시~6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농신보의 개요, 신용보증제도, 보증이용절차, 보증 취급 시 유의사항, 보증사고 관리 등 농신보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또한, 교육 시간 동안 FAQ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농신보를 이용하는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이성로 센터장은 “현재 미국의 관세 인상조치 여파 등으로 인한 전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지만, 남원센터는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보증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농신보의 개요, 신용보증제도, 보증이용절차, 보증

/남원=정하복 기자



NH농협은행, 'NH더든든밥심예금II' 출시 이벤트 진행

쌀 소비 촉진 특판예금, 최고 3.10% 금리...이벤트 참여 시 경품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상품인 'NH더든든밥심예금II'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NH더든든밥심예금II'는 오는 5월 31일까지 판매하는 특판예금으로 아침 밥 먹기 동참 시 0.5%p 우대금리 제공해 최고금리 3.10%(최저2.60%)를 제공하는 공익형 예금상품이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28일까지 진행하고 NH윌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다. 'NH더든든밥심예금II' 가입 후 가족, 친구, 지인 등에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이벤트 참가 고객중 504명을 추첨해 ▲밥상일체(발류다 더 고향, 광주요 반상기 세트, 휘슬러 수저세트, 쌀맛선 1년 구독권)(1명) ▲쌀 맛선 1년 구독권(3명) ▲원할머니 보쌈도시락(500명)을 당첨자와 응원 대상 모두에게 증정한다. 또한 고객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쌀 기부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NH윌뱅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센터(1661-3000)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호 기자



순창군의회,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가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손종석 의장은 “적십자 회비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며 우리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적십자 회비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모금된 성금은 도내 재난·재해 구호활동, 취약계층 지원, 안전교육 사업 등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관계부서 해법 모색

12개 부서 협력 실효성 정책 추진, 기업 인력난 해소·일자리 연계 지원...업별 수급 예측·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전북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인력양성 TF'를 구성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업별 인력 수급 예측 및 맞춤형 교육훈련,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부서별로 추진 중인 인력양성사업을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경제부지사(단장)로 기업에 로해소과, 일자리민생경제과, 기업유치과, 예산과를 비롯해 이차전지탄소산업과, 교육협력추진단 등 인력양성사업을 담당하는 8개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산업별 인력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인력양성 TF'를 구성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맞춤형 인력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로 ▲산업별 부족 인력 분석 ▲교육훈련 및 취업 정보 제

공 ▲우수 교육훈련기관 발굴 및 협업 ▲일자리 매칭 지원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인력 수급을 사전에 예측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우수 인재 양성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은 전북 경제 도약의 핵심 과제”라며, “TF 운영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적극 협력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중기청,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판로 개척 지원...참여자 모집

올해 최대 10만개사 소상공인 지원 예정...1:1 현장방문 교육 확대·플랫폼사 협업교육 신설 등 현장·실무형 교육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직무대리 유승우,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17일(월)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의 소상공인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공고(2.25~·수시모집)’를 시작으로, ‘교육 및 글로벌 시장지원(3.5~)’, ‘직매입 상담회(3.10~)’, ‘TV홈쇼핑 입점(3.18~)’, ‘라이브커머스 제작(3.18~)’, ‘상품개선(3.21~)’, ‘콘텐츠 제작(3.21~)’, ‘SNS활용패키지(3.26~)’ 등 총 16개 내내역 사업별로 소상공인 모집 공고를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소

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총 49.2만개사의 소상공인을 선정해 온라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터 채널 입점, 온라인 종합 인프라 구축·운영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해 왔다.

또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등을 거쳐 '25년부터 플랫폼사 선정시, 재무건전성 평가를 도입하고, 선발 이후에도 플랫폼의 재무 정보를 현황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기반도 강화했다.

올해에는 소담스퀘어 등 온라인 인프라 활용 소상공인을 포함해 최대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내내역 사업별 평가 기준에 따라, 제품 경쟁력, 사업 참여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50대 이상의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 1:1 현장방문 교육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디지털특성화대학의 교육시간을 7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해 소상공인의 교육 부담을 완화한다.

플랫폼사 협업교육도 신설해 국내·외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우수 플랫폼사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몰 입점시에는 소상공인 제품을 단독으로 노출시키는 타임딜을 집중 지원하고, 직매입 상담회를 신설해 ‘유통사 MD-소상공인 매칭’을 통해 대형 유통사 직판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더 나아가, 글로벌패키지 사업을 개편해 해외시장 분석, 번역, 컨설팅 등 초기 해외 진출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소상공인이 직접 선택해 구성하고, 우수 성과자는 해외쇼핑몰 입점지원, 글로벌 쇼룸까지 연계 지원해 소상공인의 단계별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제휴 카드사를 공모해 자부담금을 최대 12개월까지 분납(무이자 할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www.sbiz24.kr) 누리집 또는 판관대로(www.fanfandaer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준호 기자

국민연금, 4대 사회보험 교육 실시

중소상공인 대상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내달 3일부터 6월 9일까지 5개 지역에서 진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이하 센터)는 4월 3일 인천시를 시작으로 6월 9일 대전시까지 5개 지역에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이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4대보험 제도 안내와 온라인으로 4대보험을 신고·신청하는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 달 전부터 이를 전까지 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역별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한다.

2013년에 시작된 교육은 짧은 시간에 4대보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생업으로 바쁜 중소기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작년에는 중소기업인 1,114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교육이 필요한 단체나 기관은 센터에 별도로 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다. 센터는 작년 제주 탐라교육원, 대구·경북 연금관계자협의회 등의 요청으로 기관과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했다.

특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는 올해 1월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매년 교육하기로 할 만큼 만족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센터는 올해 단체나 기관 교육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준호 기자

전주상의, 통상임금·고용노동 정책 설명회 개최

기업 필수 노동정책·산업안전 감독 방향 안내...실무 적용 맞춤형 설명회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18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회원기업 경영지원 및 총무담당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임금 지정 개정 및 2025 고용노동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기업지원팀장 등이 강사로 나서 2025년 고용노동

부 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용서비스,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점검방향, 산재예방 계획, 개정통상임금 지침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노동정책 방향과 주요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실무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기업 경영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와 세법개정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인사, 노무, 회계를 비롯한 다양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익산시,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삼삼오오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익산시가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꿀잼도시 익산’ 만들기에 나선다. 익산시는 문화도시지원센터, 희망연대와 함께 진행하는 ‘삼삼오오 프로젝트’에 참여할 시민 100팀을 모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삼삼오오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익산을 더욱 즐겁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시민이 만든 익산 여행코스를 운영했다. 올해는 ‘재미있는 익산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을 주제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행사 만들기가 진행된다. 익산에 거주하는 시민·학생·직장인은 누구나 3명에서 5명까지 팀을 구성해서 참가할 수 있다.

참가팀에게는 이야기 모임을 열 수 있도록 운영비 10만 원이 지원되며, 내달 12일부터 27일까지 모임을 진행한 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20팀을 선정해 실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팀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익산 곳곳에서 참신하고 재미있는 행사를 개최하며, 최종 평가를 통해 금상(100만 원), 은상(70만 원), 동상(50만 원) 등 3개 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및 희망연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063-853-6785) 또는 희망연대(063-841-7942)로 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유기견에게 새 희망! 무료 건강검진·중성화 수술 진행

정읍시 동물보호소에 보호 중인 유기견들이 무료 건강검진과 중성화 수술을 받으며 입양 가능성을 높였다. ㈜휴넷(익산 와우동물병원 원장 오홍근)과 전북대 수의대 학생부 등은 지난 16일 정읍시 동물보호소를 방문해 보호 중인 유기견 36마리를 대상으로 기본 건강검진과 중성화 수술을 무료로 진행했다.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유기견들은 각종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봉사단은 보호 중인 유기견을 위해 내·외부 기생충 구제, 중성화 수술 등의 의료지원을 펼쳤다. 이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유기견들의 입양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숲 체험 운영

익산시가 아이들에게 자연에서 뛰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봄을 맞아 어린이집과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계절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숲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숲 체험 전문 강사 지원을 비롯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토요 숲 체험 ▲아빠와 함께하는 숲 탐험 ▲뱃줄놀이 등의 체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아이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 방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childcare.ik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9-460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공무원대상 폭력 엄정 대응”

강임준 군산시장·공무원노동조합, 대시민 호소·강경한 수사축구 공동성명서 발표

최근 군산시가 민원행정 과정에서 폭력 등 불상사가 잇따르자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대시민 호소에 나섰다. 지난 18일 강임준 시장과 박덕하 노동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7일 발생한 이번 사건은 작년에 수해피해를 입은 A씨의 민원을 도와주기 위해 현장에 방문했다가 공무원이 폭행당한 사건으로 현재 군산경찰서에서 조사 진행 중이다. 성명서에서 군산시는 이번 폭력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협박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위협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 폭력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협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민들에게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변의 가족과 이웃으로 생각해 존중해달라고 부탁했으며, 군산시 공무원들도 더욱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라 약속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대시민 호소에 나섰다

정읍시, 농소동 도매시장 주차장내 수소충전소 설치

2026년 준공 목표… 시간당 100kg 수소 충전 버스 2대 동시 충전할 수 있는 규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읍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시는 지난 18일 전북테크노파크와 수소충전소 구축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정읍시에 건립될 수소충전소는 사업비 60억원이 투입돼 시간당 10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상용 기체수소 충전소로 조성된다. 버스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농소동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부지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와 산소를 반



응시켜 얻은 전기로 구동되는 차량으로 미세먼지를 먹고 순수한 물만 배출하는 무공해 자동차로 분류된다. 이에 시는 수소충전소 구축과 함께 내년부터 수소전기자동차 5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내버스와 청소 차량도 수소연료 차량으로 전환해 수송 분야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을 적극 추진할 방

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와 청소차량도 수소연료 차량으로 전환해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정읍 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시책일몰제’ 추진… 행정력·예산 낭비 줄인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예산집행 결과 바탕 일몰 권고 대상 발굴 후 일몰 유예기간 부여

군산시가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책일몰제’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등이 행정 여건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폐지하여 다른 곳에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함으로써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 군산시는 일몰제 운영의

실효성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시책일몰제 심의 방식을 변경하였다. 기존에는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몰 대상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일몰”과 “지속”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권고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의 결과에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일몰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일몰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되, 기존에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해 일몰 전에,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관리”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하여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최종 일몰 여부를 하반기에 심의하게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신청…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올해부터 가구 단위 지급에서 농업인 개별 지급 방식으로 변경… 2인 이상 경영체 각 구성원 30만원씩 지급

정읍시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가구 단위 지급에서 농업인 개별 지급 방식으로 변경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이 환경 보전과 경관 유지,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5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농민이며, 작물 재배 농가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양봉 농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양봉 농가여야 한다. 올해부터 지급 방식이 변경되면서 1인 경영체의 경우 종전과 같이 연 60만 원을 지급받지만, 2인 이상 경영체부터는 각 구성원에게 30만원씩 지급된다.

예를 들어, 3인 경영체라면 9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민은 기간 내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마을 이·통장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가 마감된 후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검토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9월 중 정읍시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최정호 전국도부차관, 단식농성 중 긴급이송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익산 지역 처음 진행된 단식농성

익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벌인 단식농성 7일째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최 차관은 지난 일주일간 익산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대한민국 정상화”를 외치며 소금과 물로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한파와 함께 건강 상태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나왔다. 의료진은 단식 6일째부터 혈압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으나, 최 전 차관은 “탄핵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물러설 수 없다”며 단식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시민 지지자들과 가족들의 간곡한 만류, 그리고 체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결국 단식 7일째에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최정호 차관의 측근은 “최 차관이 건강보다 국가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단식을 결심했지만, 더 이상의 건강 악화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걱정만 안겨줄 것이라는 주변의 설득을 결국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단식농성 소식이 알려지면서 익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북 각지에서 지지자들이 응원하며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정호 국토부차관(전)은 병원으로 이송되기 직전 “익산 시민들과 단식농성을 찾아 격려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며 “건강을 회복해 더 잘 사는 익산 발전을 향해 뛰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전 차관의 윤석열 탄핵 촉구 단식농성은 익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단식이라는 점에서 시민에게 현시국을 알리는데 주목 받아 왔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의회, 시민고충 해결 현장민원업무 강화

현장중심 진취적·적극적인 의정활동… 긍정적인 변화로 호평 받아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 그리고 의장이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이 펼쳐지고 있어 화제다. 지난해 7월 후반반기의회 김경진 의장 체제가 시작된 지 9개월 정도 흘렀다. 익산시의회에는 ‘시민이 주인! 더 듣고 더 뛰는 실천의회 익산시의회’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주민들과 어깨를 맞대고 대화하며 지역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 김 의장의 생활 정치 철학이자 포부다. 따라서 ‘김경진 호’가 출범한 이래로

의장을 선두로 하여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 의장은 취임 직후 의회에 시민들의 고충과 각종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해 부서로 이관하는 종전의 방식을 고도화하여 사무국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민원인을 만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처럼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익산시의회의 의정활동 모습에 시민들의 호평이 자자하다는 후문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축제위원회 개화… 신임 축제위원들과 첫 만남

군산시가 올해 새롭게 위촉된 축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군산시 축제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산시 축제위원회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최·육성하기 위해 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김영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축제·관광 전문가와 지역 문화예술인 등 11명으로 꾸려졌다. 지난 17일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에 이어 진행했다. 논의된 축제들은 ▲우

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어촌체험 섬마을 작은축제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풍당보리축제 ▲군산 시간여향축제 ▲군산짬뽕페스티벌 등 군산 6개 주요 축제였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축제의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올해도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연중 실시

군산시가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2,21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각 30만 원씩 총 6억 6,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민생경제회복 지원대책의 하나로 2023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월 30만 원의 임대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시는 올해 동안 8,000개 업체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군산시장 관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선정

49개 지원 기업 중 29개 기업 최종 선정…근무환경 및 복지편익 개선 본격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업체의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47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난 13일 열린 융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29개 기업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원 분야는 ▲근무환경 개선사업(17개 기업), ▲복지편익 개선사업(12개 기업)으로 나뉜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국소 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악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며, 복지편익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장, 체력단련시설 등의 조성 및 개보수를 포함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 11건, 복지 편익 개선 9건을 지원했으며, 기업과 근로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올

해는 지원 규모가 확대돼 더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열악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관내 제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해,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98.2% 지급

1,457여명 미수령…신청기한 오는 31일까지·사용기간 5월 31일까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국가적인 혼란과 경제적 위기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일상회복지원금이 오는 31일까지 지급 마감된다.

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가적인 혼란과 경제적 위기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월 20일 첫 지급한 2025년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이 지난 14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 80,940명 중 98.2%인 79,483명에게 지급이 완료됐으며 지난 2022년 1차 일상회복지원금은 최종 97.4%가 지급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1,457여명이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시는 일상회복지원금 미신청자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을 제외하고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 세대 등 일반 거주자 중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지역사정에 밝은 이·통장 등을 통해 소재 파악 후 신청 안내 및 대리신청 등으로 지급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률 100%를 목표로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청 기한이 오는 31일까

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급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생업, 부채 등의 사유로 아직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및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0만원권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 유흥업종 등을 제외한 김제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며 기한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관내 총 9대 운영

지난 해 7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수수료 전면 무료 운영 호응

고창군이 최근 선운산농협(무장면 무장읍성로 34)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관내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9대다. 군청, 고창읍사무소, 고창병원, 석정웰파크병원, 고창농협하나로마트, 대성농협(본점), 상하농협 365코너, 흥덕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건축, 국제증명, 교육학적부 등 90여종의 민원서류를 제공해 주민이 여러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해 7월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무료로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단 법원 소관 서류인 부동산등기사항



고창군이 최근 선운산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관내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9대다.

증명서는 유료 발급이다.

유성룡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업무시간에 민원업무 볼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

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며, “앞으로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해빙기 민간 위탁 시설물 안전 점검 완료

부안군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봄철 해빙기 안전 점검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지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간 위탁 시설물의 체계적 운영·관리 확인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주산하늘빛문화센터, 동진문화복지센터, 백산녹두꽃문화복지센터 등 군에서 민간 위탁해 운영되는 관내 주요 시설 11개소로서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운영관리 실태, 화재처리 투명성 및 협약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시설물 점검 과정에서 물품관리 대상 및 시설물 점검내역 비치 등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했으며 누수과 같이 추가적으로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제



부안군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봄철 해빙기 안전 점검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지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상반기 각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해빙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봄밤 유혹할 아름다운 선율 선사

오는 28일 고창문화의전당서 신춘음악회 개최

고창군이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신춘음악회를 개최한다.

바리톤 김동규와 뮤지컬 배우 문희경, 이진경이 출연해 아름다운 목소리를 선사한다.

이와 함께 1991년 설립된 순수 민간교향악단인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윤승업이 아름다운 선율로 봄밤을 물들일 계획이다.

공연 관람은 6세 이상이며, 관람료는 1만원이다.

단, 고창군민 특별할인으로 일반 군민은 3000원이며, 청소년은 1500원이다.

공연티켓은 21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구입할 수 있으며, 고창문화의 전당 매표소 현장 예매와 인터넷 예매를 동시에 진행한다.

/고창=백종규 기자



나윤옥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군민 모두가 희망 가득한 신춘음악회 공연을 통해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시, 명예환경감시원 발대식…환경 실천 역할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오염 감시 및 신고, 환경보전 활동 강화를 위한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및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신규 및 재유족된 25여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참여했으며, 환경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환경 보호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또한, 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역할을 알기 위해 실시한 소양교육은 한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명예환경감시원들은 교육을 통해 민간 차원의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앞으로 2년의 위

촉기간 동안 활동하게 되며, 불법소각, 쓰레기 무단투기,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방치, 야생동물 불법 수렵, 생태계교란 생물 불법 사육·방생 행위 등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발견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은 명예환경감시원들이 관할지역 내 환경감시와 환경보전 캠페인을 통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원들은 환경캠페인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환경실천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만성질환 정보·예방 교육…노년기 활력 ↑

의료급여 지역 주도형 특화사업 ‘건강백세, 생활속 자가관리’ 추진

고창군이 의료급여 지역 주도형 특화사업으로 ‘건강백세, 생활속 자가관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건강백세, 생활 속 자가관리’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정보제공과 예방 교육을 통해 노년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대상은 만성질환 의료급여 수급권자 80명이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들의 혈

압, 혈당 측정 등 건강 체크, 근감소증 화사업으로 ‘건강백세, 생활속 자가관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건강백세, 생활 속 자가관리’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정보제공과 예방 교육을 통해 노년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 대상은 만성질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가건강관리 실천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드림스타트,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시범 운영

부안군 드림스타트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지난 1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9년생부터 2021년생까지의 영유아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습놀이 지원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그림책 읽기, 놀이 활동, 오감 자극 체험 등 다양한 교육적 요소를 포함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보호자들도 함께 참여해 자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놀이를 통해 배

움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협약업체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들이 학습과 놀이를 함께 경험하며 건강한 성장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아동들을 위해 도서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드림스타트는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문화도시센터, 치유문화상품 ‘청년, 김반디의 방’ 운영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오는 21~23일까지 카페 밀과보리에서 치유문화상품 ‘청년, 김반디의 방’ 반짝매장을 운영한다.

‘청년, 김반디의 방’은 청년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을 주제로, 지난해 선정된 치유문화상품을 활용해 전시와 판매를 진행한다.

치유문화상품으로는 ▲고창 농산물을 활용한 4종 차 ▲고창 고인돌을 활용한 타로카드 ▲고창 솔향을 담은 비누로,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타로카드와 연계한 ‘고인돌 상담소’와 나만의 타로카드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며, 반짝매장 한정 메뉴인 간식과 차도 판매될 예정이다.

이문식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을 대상으로 고창의 치유문화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인적안전망 네트워크 사업 ‘안부 묻는 발걸음’ 힘찬 출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지난 17일 우음·자살·고독사 위험군 세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적안전망 네트워크 사업 ‘안부 묻는 발걸음’ 실버벨 디동·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안부 묻는 발걸음 실버벨 디동 사업은 올해 백산면, 백구면, 공덕면, 청하면, 요촌동, 신평동, 검산동, 교월동 등 8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44명의 안병지킴이들이 해당 지역 마을의 독거 어르신 150여세대를 찾아가 안부를 묻고 유제품을 나누는 봉사활동으로, 올해 연말까지 주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주 안부를 묻고 유제품을 나누는 봉사가 쉬운 일이 아니네 자발적으로 협조해주는 안병지킴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부량면 용골마을, 주민들 손길로 탄생한 ‘철쭉 꽃길’

김제시 부량면 행정복지센터는 용골마을(이장 김상철)이 지난 15일 따뜻한 봄기운을 머금은 철쭉 250주를 식재하며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가꿨다고 밝혔다.

용골 경로당 앞 약 70미터 구간에 철쭉이 심어진 이 꽃길은 마을 주민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모여 탄생한 뜻깊은 공간이다.

이번에 조성한 꽃길은 벽골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하는 동시에, 마을 주민들에게도 편안한 휴식과 따뜻한 정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됐다.

주민들은 꽃길에 오랜 시간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와 보안 작업을 이어나가며,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마을의 명소가 가꿔나갈 계획이다. 꽃이 피어나는 길을 따라 마을 곳곳에 따뜻한 정이 스며들고, 이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행복과 여유를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철 용골마을 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꽃길을 가꾸면서 서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인덕 부량면장은 “주민들이 정성을 다해 조성한 꽃길이 부량면을 더욱 따뜻하고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다”며,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마을의 품격을 높이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순창, 오지마을 농기계 수리 교육 진행

수리센터 접근 취약 마을 100곳 순회…농업기계 점검·자가 정비 실습 병행
부품비 지원·안전 교육 강화로 농업인 부담 완화

순창군이 농업기계 수리센터와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자가 정비 기술 향상,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마련됐다.

순회수리 교육은 이달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관내 오지마을 100곳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농업기계 전문경력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수리반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농업기계 점검과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단순한 수리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들이 자신의 농업기계를 직접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농기계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농업기계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이 농업기계 수리센터와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기계 유지·보수 비용 절

감을 위해 소모성 부품과 기타 재료비 6만 원 이하의 부품을 무료로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20만 원까지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이 같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은 농업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국립광주박물관과 도자문화 발전 위한 ‘맞손’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 거점 사업·남원도자전시관 건립 운영 등 상호 협력

남원시는 18일 남원시청 시장실에서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홍선)과 대한민

국 도자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남원시와 국립광주박물관 양 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도자관련 전시, 교육, 학술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 거점 사업, 남원 도자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도자전시관의 성공적인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등 국내 도예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합파우 유원지 내에



남원시는 18일 남원시청 시장실에서 국립광주박물관과 대한민국 도자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자전시관, 남원현대미술목공예관, 키즈아트랜드 등을 조성하는 합파우 아트밸리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립광주박물관

과 다방면으로 협업해, 남원의 유서 깊은 도예문화를 기반으로 아시아 도예 문화 교류 및 대한민국 도자문화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 참여자 온라인 사전 접수 시작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모악산 숲산책 사전 접수…내달 2일까지 선착순 모집

완주군이 오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모악산축구장 및 도립미술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3회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 프로그램의 온라인 사전접수를 시작한다.

모집 프로그램은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와 ‘모악산 숲산책’ 프로그램으로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 프로그램은 숲 해설사의 인솔 하에 저수지 둘레길 일부 구간을 걷고 솔테마박물관 관람으로 마무리되는 프로그램이다. 성인

기준으로 90분 가량의 걷기 코스가 포함돼 있으며 회차 정원은 30명이다.

모악산 숲산책 프로그램은 도립미술관 뒤 모악산 녹색 나눔숲을 배경으로 생태체험과 해먹체험 등 휴식을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축제 당일간 총 2회차로 운영되며 30명씩 총 60명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인터넷 포털에서 웰니스 축제를 검색하거나 완주군 문화관광 홈페이지(www.wanju.go.kr/tour)의 웰니스 축제 정보 메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

군 관광체육과 관광축제팀(290-3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모악산 웰니스 축제가 열리는 모악산 축구장 일원에는 ‘모악산 플레이그라운드’의 에어바운스 놀이터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헬스 릴레이 게임’ 코너, 도립미술관 일원 소나무 숲을 활용한 밭줄, 네트플레이 등의 ‘웰니스 숲 놀이터’가 열릴 예정으로 모두 즉석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미술, 공예, 친환경과 아로마 등 심신안정을 소재로 한 체험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7개 기업과 여성 인력 채용 확대 협약 체결

순창군은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7개 기업과 여성 인력 채용 확대와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전정희)에서 주관한 이번 협약은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사조산업, 한국씨엔티, 희망병원, 성가정식품, 순창시니어클럽 등 기업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 체결과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염기남 순창부군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에서도 여성친화일촌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많은 여성과 기업이 참여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친화일촌기업’은 여성친화적 일터를 조성하고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하며, 해당 기업들은 전북광역여성새일



센터에서 추진하는 새일여성인턴지원금(400만원)과 여성휴게실 조성 등 기업환경개선 지원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300인 남원시민합창단, 춘향제 무대 선다

개막식·폐막식 합창 공연…이달 28일까지 단원 모집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 주제로 펼쳐질 제95회 춘향제에 ‘300인의 남원시민합창단’이 개막막식 주

제공연에 참여한다. ‘제95회 춘향제’는 춘향가의 고장 남원에서 펼쳐지는 7일간의 소리 여행으로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광한루원 및 요천변 일원에서 개최한다.

시민합창단은 2024년 문화의 달 행사 개막식에 이어 올해 춘향제에도 참가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다. 오는 5월 1일에 있을 개막식과 5월 6일 폐막식의 주제공연으로 합창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민합창단은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 및 접수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남원시청 누리집(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메일(krbsy@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063-620-6180으로 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농민공익수당 신청절차 간소화…혜택은 확대

남원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5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개별 단위’ 지급으로 변경되면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 여성 농업인도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남원시에 새롭게 정착한 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 요건이 완화돼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이러한 지원 확대에 따라 남원시는 76억여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

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경영체에는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의 경우 구성원 1인당 30만원이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모두 농업인일 경우 총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경영체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농민 공익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시는 대상자 검증 절차를 거쳐 추석 명절 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영양플러스사업 ‘인기’…로컬푸드 보충식품 제공



식품을 적게는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제공하고 대상 범주별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매월 보충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완주에서 출하되는 유정란, 감자, 당근 등의 로컬푸드 품목으로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있어 만족도가 크다.

이번 교육에서는 영양플러스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고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을 돕기 위한 특강이 진행됐다. 또한, 보충 식품의 효능과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영양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에 참석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임산부·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조직개편 단행…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 박차

남원시는 민선 8기 비전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실현을 위해 주요 사업들의 추진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지난 2월 17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중앙정부의 조직·기능 개편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다양하고 심층적인 행정 요구사항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남원시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및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법규 총 59건(조례 46, 규칙 13)을 일괄개정 추진 중으로 남원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의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입법 보고를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 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통해 조직개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각종 시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남원시민과의 약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2025 완주로(路) 버스킹’ 추진

시)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이하 완주생문동)가 오는 4월부터 ‘2025 완주로(路) 버스킹’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버스킹은 10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올해는 기존 거리공연 뿐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버스킹’을 함께 운영해 더욱 풍성한 공연으로 군민 곁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군청 광장과 삼례문화예술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는 ‘길거리 버스킹’을 통해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복지시설과 문화 소외지역에서는 ‘찾아가는 버스킹’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완주로(路) 버스킹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완주군의 대표 생활문화사업으로, 동호회원들에게는 재능 발휘의 장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일상 속 생활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 공연이 필요한 기관은 완주생문동 다음카페 ‘공지사항’을 참고해 3월 24일(월)까지 이메일(wjcultureclub@daum.net) 또는 사무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장내 기생충 무료 검사 지원…이달 28일까지

순창군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흡충 증(간디스토마) 등 11종의 장내 기생충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를 희망하는 30세 이상 주민은 이달 28일까지 순창군보건의료원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용기(대변통)를 수령한 후, 채취한 분변을 제출하면 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주민에게는 치료비도 무료로 지원된다.

특히, 순창군은 섬진강 유역에 위치해 장내 기생충 질환 유행 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간흡충 중심의 기생충 검사가 더욱 필요하다.

간흡충은 민물고기를 생식하거나 오염된 주방 기구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감염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급성 감염기에는 상복부 통증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만성 감염 시 허약, 식욕 부진, 체중 감소, 황달, 간경변, 담관암 등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기 검사가 중요하다.

한편, 장내기생충 무료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검사를 희망하는 군민은 순창군보건의료원(650-5215, 5243) 또는 거주지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이서면, 아파트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

완주군 이서면이 아파트 위기가구 발굴에 나섰다.

18일 이서면은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13개소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홀몸노인 등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의 생활 실태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견하면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하게 연계한다.

이서면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가구 실태 파악 후 필요한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을 맺은 혁신 LH9단지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으

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배귀순 이서면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보다 신속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주)탑네트워크, 게이트볼장 공기청정기 기증

익산 배산실내체육관 게이트볼 동호인 위해 공기청정기 6대 기탁...이용객 편의 증진 기대

익산 배산실내체육관 환경이 개선되면서 이용하는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익산도시공단은 지난 17일 이상목 ㈜탑네트워크 대표가 게이트볼 동호인들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산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이상목 ㈜탑네트워크 대표와 이사회 임원, 관계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기증된 공기청정기는 총 6대다. 이상목 대표는 안전한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길 바라는 동호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기청정기를 기증하게 됐다. 기증된 공기청정기는 이날 중 배산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에 설치돼 쾌적



익산도시공단은 지난 17일 이상목 ㈜탑네트워크 대표가 게이트볼 동호인들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한 환경 조성에 일조하게 된다. 이상목 대표는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게이트볼을 통하여 건강증진에 나서고 있는 동호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옥구읍 지사협, 사랑의 빵 나눔 펼쳐

옥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손수경, 전근식)는 대한적십자사 군산분사관에서 지역 내 복지시설에 전달할 빵을 만드는 제빵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18일 열린 행사는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전달하고자 옥구읍 협의체 및 자생단체 위원 20명이 직접 참여했다. 위원들은 단팥빵 400개를 만들어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이를 관내 경로당에 직접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

사랑의 빵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빵에 남아있는 온기처럼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라며, “맛있는 빵을 나누며 즐거운 오후를 보낼 것 같다”라고 기뻐했다.

손수경 옥구읍장은 “바쁜 일상 중에서도 나눔 실천에 동참해주신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옥구읍에서는 지역사회 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남원시중소기업인회,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 생계비·복지 지원금 전달...매년 꾸준한 나눔 사회공헌 활동 이어가

남원시 중소기업인회(회장 김동훈)가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중소기업인회는 지난 18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계비 및 복지 지원금으로 사용될 500만 원의 성금을 남원시에 기탁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뜻을 전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동훈 회장을 비롯해 최정수 부회장, 김희만 총무, 유시봉 재무 등 중소기업인회 회원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남원시 중소기업인회’는 매년 꾸준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기업인



들을 위한 제도 안내,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활동 펼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남원=정하복 기자



고창군·정선군사회복지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고창군 사회복지과와 정선군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상호 간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 간 상생 발전과 연대 강화를 위한 뜻깊은 행보를 이어갔다.

고창군은 230만원, 정선군은 260만원을 각각 상대방 지자체에 기부하며, 양 지역 간의 유대를 더욱 깊이 쌓았다.

이번 기부는 고창군과 정선군이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추진된 활동으로, 지역 간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양측은 이번 기부가 서로의 발전을 도모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수목 사회복지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연결하는 따뜻한 손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부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양 지역은 서로에 대한 응원과 관심을 가지고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다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인성농장영농조합법인, 장학금 300만 원 전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인성농장영농조합법인(대표 강양현)이 지난 18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재)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인성농장영농조합법인은 백산면을 중심으로 특용작물인 고구마 농업에 종사하며, 김제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첫 장학금 기탁 이후, 14년 만에 다시 지역 인재육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

기탁식에 참석한 강양현 대표

는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두 번째 기탁으로 더욱 뜻깊은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되도록 의미 있게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인사]

전북특별자치도

◆ 직무대리

▲2036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장 조영식 ▲체육정책과장 엄현미 ▲교통정책과장 김정중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이영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 시설팀장 김용일 ▲경영평가팀장 김상민 ▲체육정책팀장 김점숙 ▲가족다문화팀장 강영란 ▲고령친화정책팀장 김정은 ▲협치농정팀장 전은정 ▲입법실현팀장 김연옥

◆ 전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 평가대응과장 유승민 ▲물통합관리과장 육원만 ▲정책기획과 국가예산팀장 이광수 ▲2036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 기획운영팀장 이경순 ▲복지정책팀장 이미선 (2025년 3월 19일 자)

(사)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3백만 원 장학금 기탁

사단법인 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이하 경영자협의회)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사장 강임준)에 군산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으로 3백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 18일 기탁식에 참석한 김경희 경영자협의회장은 “이번 기탁이 군산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경영자협의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군산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군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경영자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달하신 장학금은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영자협의회는 군산국가산업단지와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도에 조직되어 산단 내 네트워크 강화로 군산산업단지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군 비봉면, “할아버지 반찬교실 문 열었어요”

완주군 비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국쇠철, 심미정)가 지난 18일 새봄을 맞아 스스로 부식조달이 어려운 홀몸 할아버지 12명을 대상으로 할아버지 반찬교실 개학식을 개최했다.

할아버지 반찬교실은 비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특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이 사업은 11월까지 매월 1회씩 진행되었으며,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반찬교실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지난해 반찬교실을 통해 다양한 요리를 배우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 기뻐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 첫 반찬교실을 손꼽아 기다렸고, 올해도 반찬교실을 통해 새로운 반찬을 배우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미정 비봉면장은 “반찬교실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정에서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장수군 산림조합,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

장수군 변암면은 장수군 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이 지난 17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써 달라며 변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성은, 민간위원장 박장옥)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변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김성은 면장, 한상대 조합장, 박장옥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 100만원은 변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상대 조합장은 “이번 성금이 어르신 및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변암면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수군 산림조합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장옥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장수군 산림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기탁 해주신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작년, 올해

농지를 매도하셨나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받아가세요!

QR코드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농업인 요건

- 약정제결일 기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지급대상농지

- 3년 이상 소유 중인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

지원내용

①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② 매도(일시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50만 × 지급기간 × 지급율

* 경작허용농지 1,000㎡ 미만일 경우만 가입 가능, 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③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①과 ③의 경우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후 지원

지급상한 면적

- 최대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매도*] 최대 월 200만원(4ha기준)

* 10년 기준 (분할지급) 240백만원, (일시지급) 168백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최대 월 160만원(4ha기준)

* 10년 기준(분할지급) 192백만원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사업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자세한 가입조건, 지급금액 등은 상담 후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문의 ☎ 1577-7770

〈一事一言〉



내란 불면증이 망가뜨린 한국인의 정신건강(1)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 많은 이들이 정신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는 윤석열을 찍은 소위 2짜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인간 일반에 대한 회의와 불신으로까지 확산된 결과인 인간 불신증과 인간 혐오증, 그로 인한 미래에 대한 비관이 심각했다. 윤석열 일당의 인간 이하의 저열한 말과 행동, 검찰독재의 폭정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극심한 분노와 우울증 등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리고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내란의 밤 이후 한국인들은 소위 내란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은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을 극심하게, 또 급속히 파괴한 것이다.

군부독재의 만행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 특히 광주민주화쟁을 겪은 사람들은 내란의 밤 이후부터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하거나 심각한 불안으로 인해 일상에 집중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광주민주화쟁을 경험한 어떤 분은 12월 3일 이후부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잠이 들어도 악몽을 꾸다 깨어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인들은 빠르게는 군부독재를 역사무대 뒤로 퇴장시킨 87년 6월항쟁 이후 혹은 늦잡아도 김대중 정부가 탄생한 뒤부터는 국가폭력, 특히 계엄군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기 시작했다.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일,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발

포하는 일 따위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윤석열 일당의 내란은 마음 깊숙한 곳에 묻힌 군부독재의 폭력에 대한 기억과 공포를 일깨웠다. 이것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 단순히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치명적으로 파괴했음을 의미한다.

윤석열 일당이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극적으로 파괴하고 급속히 악화시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 시기에 한국인의 정신건강이 양호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인의 정신건강은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부터 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은 83만 7808명에서 104만 6816명, 불안장애는 74만 7373명에서 88만 9502명, 공황장애는 19만 6443명에서 24만 7061명, 조울증은 11만 1851명에서 13만 8068명으로 증가했다. 이 자료를 보면 우울증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들이 우울증에 특별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울증을 특징짓는 정서는 슬픔과 분노이다. 우울증은 이 슬픔과 분노, 특히 분노를 밖으로 건 강하게 표출하지 못해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실 슬픔과 분노는 우울증만이 아닌 여러 정신장애의 공통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사랑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된 슬픔과, 사랑을 해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분노가 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가학증을 앓게 될 수도 있고 우울증을 앓게 될 수도 있다.

권력과 부를 소유한 기득권층에서 성장한 사람은 가학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 항상 자기보다 가난한 친구나 서열이 아래인 부하직원 등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층은 통상적으로 갑질,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희롱 따위로 구실수에 오르곤 하는데, 이것은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정신장애가 가학증임을 보여준다. 반면, 평범한 서민층에서 성장한 사람은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 그에게는 주변에 분노를 표출할 만한 대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 계급이나 계층이 아니라 개인적 차이가 가학증이나 아니면 우울증이나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가학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 분노를 자기를 향해 돌리기보다는 타인들과 세상을 향해 병적으로 분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착한 사람은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 착한 사람은 분노가 아무리 심해도 그것을 남들한테 퍼붓지 못하거나 꺼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기득권층, 못된 인간을 대표하는 부자병이 가학증

이라면 보통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병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이 우울증에 특별히 취약한 것은 극소수 기득권층을 제외한 나머지 절대다수가 평범한 보통 사람에 속하기 때문이고, 극소수의 악인을 제외한 절대다수는 비교적 선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나날이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여전히 착해서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개혁의 좌절로 인해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낮은 편이다. 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이 3월 6일에 발표한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지난해 8~9월에 전국의 19세 이상 825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조사를 보면 지난해 한국인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으로, 전년(6.7점)보다 0.1점 올랐다. 원래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경제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한 국민의 행복감은 별다른 변동 없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연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헌법재판소,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라

윤석열 탄핵심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속도가 길어지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적 의미를 감안할 때 헌재가 심사속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지체가 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사회 불안은 가중되고 국민들의 인내심은 임계점을 찍고 있다.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고 헌법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헌재는 더 이상 선고를 미뤄서는 안 된다. 헌법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신속하고도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최근 극우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탄핵 불복 선동은 그 위험성을 넘어 국가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재를 끌어버린다거나 불법 계엄을 주장하는 등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있는 이 중재대한 탄핵심판을 두고 법치를 부정하며 폭동을 선동하는 무리들은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문제는 이러한 극단주의의 발호가 일부 법조인과 헌법학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들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국회의원 82명이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해 윤석열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논리가 얼마나 건강부회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혼동하거나 내란죄 철화를 이유로 탄핵소추의 정당성이 상실되었으니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억지는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 요설에 불과하다.

탄핵심판은 정치적 책임과 헌법 수호

의지를 묻는 절차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에도 뇌물죄를 제외하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했던 전례가 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그로 인한 헌법질서의 훼손 여부는 이미 헌재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졌고 검찰 진술 조서 또한 헌법재판관 전원 의견의 단장일치로 증거로 채택됐다. 이는 박근혜 탄핵 당시 확립된 원칙을 그대로 따르는 절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 세력은 헌재가 절차적 정의를 훼손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과 행동은 결국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의 헌법 무시 행위는 결코 가벌치 않다. 국민 앞에 거짓말을 일삼고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지지층을 선동해 헌정 질서를 위협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훗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헌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있다. 오로지 헌법과 국민 뜻만을 기준으로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의 지체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 헌재가 응답할 차례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루트로, 헌재는 그 책임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화재열전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물, 불교조각, 불상
-지정일- 2000년 3월 31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김제시 황산5길 158 (황산동)

▲오늘의시

門이 열리고 / 나희덕

한 개의 門이 열려
머칠째 눈발이 천지를 매우더니
천 개의 門이 닫히고
발들은 모두 묶이고 말았네

마른 풀대도
시린 발목을 눈에 묻고

시인 약력 : 1966년 충남 논산 출생. 연세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당선되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네
소리들도 간췄네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가장자리는 열어가지만
흐르는 물만이 門을 닫지 않아
나는 물소리 앞에 쫓겨라 앉았네

등단했다. 시집으로 '뿌리에게' '그 말이 앞을 몰들었다'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반 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등이 있다. 김수영문학상과 미당

천 개의 門이 닫히고
당신에게로 흐르는 水門만이 남았네

눈송이를 낚으려 하나
물에 닿는 순간 사라져버리네
젖은 눈 속에 젖은 눈,
그 열린 門으로 나도 따라 들어가네

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조선대 문창과 교수를 거쳐 2019년 3월부터 서울과학기술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별관우) 549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뉴-스

전북타임스 신문!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신문구독 282-9600

다시 깨어나는 익산역 구도심, 새로운 바람에 활력 돈다

호남 철도 교통의 중심지인 익산역 인근은 과거 수많은 사람이 쉴 새 없이 오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권이 쇠퇴하고 유동 인구가 줄어들며 구도심으로 전락했다.

인구 감소와 노후한 시설로 활기를 잃어가던 익산역 주변 구도심에 최근 특색 있는 공간과 새로운 맛집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과거 변화했던 도심의 기억을 되살리며, 다시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익산역 주변 골목들을 거닐어보자.

/편집자 주

◆ 금종제과와 보글하우스: 새로운 명소의 탄생

이달 문을 연 '금종제과'는 고소한 빵 냄새와 함께 매장을 가득 채운 손님으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룬다. 매장에서는 시시각각 빵이 나오는데, 원하는 빵을 구매하기 위해 매대 앞에서 빈 집게를 들고 기다리는 이들도 있다.

익산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금종제과는 익산역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 낡은 은행 건물을 현대적 감각으로 개조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은행으로 운영되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과거 익산역의 활기를 떠오르게 하는 베이커리 카페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철로와 열차, 기차역 대합실을 주제로 꾸며진 고풍스러운 내부와, 상상력이 깃들어 더욱 독창적인 각종 메뉴는 젊은 세대부터 노년의 방문객까지 폭넓은 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옛 정취를 느끼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메뉴로 꼽히는 대표 디저트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새로운 지역의 명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익산지역 향토기업 하림과 삼양라면이 손을 잡고 탄생시킨 복합문화공간 '보글하우스'도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곳은 식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하며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공간은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으로 사랑받고 있다. 라면에 들어가는 식재료부터, 라면 끓는 소리, 라면의 역사 등 오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금종제과, 보글하우스 등... 익산역 앞 놀거리·먹거리 입소문 라면·탕수육 함께 먹는 노포... 신선한 닭구이 즐기는 계화림 골목마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으로 관광객 사로잡아



금종제과



보낼 수 있다.

◆ "라면에 탕수육은 못 참지" vs "당일 도축 신선한 닭고기 먹어볼까"

보글하우스에서 현대적인 감성의 라면을 경험했다면, 이번엔 노포 감성의 라면을 경험할 차례다. 익산 중앙시장에

가면 라면과 탕수육을 함께 파는 작은 가게들이 있다. 구름 같은 계란이 듬뿍 든 기본 라면부터, 해산물에 든 짬뽕라면, 치즈라면까지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다.

분식집 입구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수육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보글하우스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익산근대역사관

고소한 기름 냄새와 바삭바삭 튀겨내는 소리가 발걸음을 짝 붙잡는다.

하림과 익산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협력 추진 중인 '치킨로드 프로젝트'도 주목받고 있다. 치킨로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맛집을 활용해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익산시민의 전략이

다.

신선하지 않으면 굶지 않는다는 닭구이 전문점 '계화림'이 익산역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치킨로드 1호점으로 동지를 틀었다. 계화림은 그날그날 망성에 있는 하림 닭 공장에서 직접 신선한 닭을 공수받아 상에 내놓는다.

특히 계화림은 올봄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손님 물이에 나신다. 이와 함께 계화림으로부터 닭요리 비법과 운영전략을 전수 받은 치킨로드 2호점 '연풍닭'도 인근에 매장을 열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치킨로드 프로젝트의 추가 매장을 계속해서 시민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 시민역사기록관과 근대역사관: 발자취가 담긴 공간

지난 연말에는 이곳 구도심에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 개관해 지역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기록관은 1930년대 지어진 옛 익옥수리조합 건물을 보수해 조성했으며 시민들이 기증한 9,000여 점의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다.

1층에는 상설전시실과 보이는 기록수장고, 기증자 명예의 전당이 마련돼 있으며, 2층에는 교육 관련 기록물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실과 교육·체험 공간이 조성돼 있다.

특히, 3층 지붕층은 1930년대 건축물의 흔적을 간직한 목조 트러스 구조로 보존돼 있어 역사적 가치를 더한다.

'익산근대역사관'은 익산의 100여 년 전 근대 역사와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공간이다. 역사관은 1922년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김병수 선생이 개원한 삼산의원을 모태로 하고 있다.

역사관은 내부 전시뿐 아니라 '익산구삼산의원'을 이전 복원해 놓은 건물 자체가 전시의 대상이다. 아치형 포치와 코니스 장식 등 근대 초기 건축양식의 특징을 잘 지니고 있다.

이곳에서 방문객은 전시물을 통해 아픈 과거와 근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의미를 되새기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사실 익산역 주변 구도심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몇몇 새로운 명소 때문만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가 오묘하게 서로 어우러진 문화가 만들어진 특유의 분위기가 시민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역시 구도심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구도심의 변화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어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함께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공간을 조성해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고창군의회가 만들어가겠습니다.

고창군의회

